

제12강 관리인들의 비유(19,11~27)

루카는 예리코를 지나가시는 예수(루카 19,1)께서 이미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고 함으로써(19,11) 그분의 여정이 목적지에 다다르고 있음을 서술했다. 또 루카는 자개 오의 이야기(19,1~11)에서 제시된 구원의 때(19,9)를 하느님 나라의 도래(19,11)에 연결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하느님 나라가 임박했다고 생각한 것 같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그릇된 생각을 물리치시기 위해 관리인의 비유를 제시하셨다. 이 비유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당신의 왕권을 인정하라고 청중과 적수들에게 호소하신 것을 서술한 것이다.

1. 출전, 문학양식과 구조

관리인들의 비유(19,11~27)에 연결되는 본문은 마태오 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이다. 두 본문을 비교해 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발견되는데 **공통된 구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왕위를 위한 귀족의 여행 출발

둘째,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맡겨 수익을 거두게 한다.

셋째,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에게 셈을 밝히라고 한다.

넷째, 주인이 종들 가운데 세 명과 계산한다.

다섯째, 첫 두 종들이 칭찬과 보상을 받는다.

여섯째, 셋째 종이 벌을 받는다.

일곱째, 결론

이처럼 루카 복음과 마태오 복음은 그 구조와 사상이 서로 비슷하다. 이처럼 비슷한 점들은 두 복음의 본문이 「예수어록」에서 나온 것임을 암시한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차이**들도 발견된다.

	루카 복음	마태오 복음
장소	예리코	예루살렘
청중	군중	제자들
등장인물	귀족, 열 명의 종	사업가, 세 명의 종
사명	각 종에게 한 미나씩	각 종에게 5,2,1 달란트
보상	각기 차이가 나는 보상	각 종에게 같은 보상

루카 복음 19장 11절의 진술은 관리인들의 비유를 도입하고 이 비유를 19장1절에서 10절까지에 연결한 것으로, 루카 복음사가의 편집에 속한 것 같다. 또 임금이 된 후 종들에게 자기 도시들을 다스릴 권한을 주려는 사람이 그들에게 열 미나 밖에 되지 않는 소액을 맡긴다는 것은 그럴듯하지 않다(루카 19,12~13). 게다가 두 구절 사이의

연결은 매끄럽지도 않다. 왜냐하면 귀족이 왕권을 받으려 먼 길을 떠났다고 서술한 다음(루카 19,12), 자기 종들에게 미나를 맡겼다는 진술(19,13)은 어색하기 때문이다. 또 ‘백성들’은 아무 동기도 없이 갑자기 언급되었다(19,14). 그리고 돈을 맡긴 열 명의 종들 가운데 세 명만 셈을 보고했다는 진술(19,16)도 이상하므로 루카 복음사가의 편집이라고 여겨진다. 귀족들이 돌아와 자기 원수들을 학살했다는 진술(19,27)은 루카 복음과 마태오 복음의 공통된 구조에 나오지 않으므로 루카 복음사가가 「예수어록」에 덧붙인 것으로 여겨진다.

루카 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문학양식은 비유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첫째, 도입(19,11)

둘째, 종들에게 사명을 맡기고 왕권을 위해 여행을 떠난 귀족, 왕권에 대한 백성들의 반대(19,12~14)

(가) 어떤 귀족의 여행(19,12)

(나) 종들에게 사명하달(19,13)

(다) 왕권에 대한 백성들의 반대(19,14)

셋째, 관리직분에 대한 종들의 충성도 확인(19,15~26)

(가) 충성도 확인을 위한 종들의 소집(19,15)

(나) 첫째 종에 대한 칭찬(19,16~17)

(다) 둘째 종에 대한 칭찬(19,18~19)

(라) 다른 종에 대한 질책(19,20~24)

(마) 군중의 반응(19,25)

(바) 칭찬과 질책에 대한 임금의 평가(19,26)

넷째, 백성 대표들에 대한 심판(19,27)

2. 도입(19,11)

예수께서는 아직 예리코에 계신 것 같다. 해발 약250미터 아래에 위치한 예리코에서 해발 약 790미터 높이의 예루살렘까지는 오르막길로 약 27.5킬로미터이다. 자캐오와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던 군중과 제자들, 적수들(루카19,7~10)에게 예수님은 관리인들의 비유(19,12~27)를 제시하셨다. 그 이유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예루살렘 도착이 임박했고 유다인들이 하느님 나라의 성취에 대해 그릇된 기대를 품고 있었기 때문인 듯하다.

3. 종들에게 사명을 맡기고 왕권을 위해 여행을 떠난 귀족, 왕권에 대한 시민

들의 반대(19,12~14)

3.1 어떤 귀족의 여행(19,12)

귀족이 자기 종들을 떠나 외국 땅에서 왕권을 받아온다는 진술은 예수께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자들을 떠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아버지의 왕권을 받으시며(에페 1,19~23; 콜로 1,13~14) 임금, 즉 영광을 입은 메시아로 발현하심을 예상하게 한다(사도2,32~36), 귀족이 ‘왕권을 받아 오려고...떠나게 되었다’라는 말(19,12)은 11절에 대한 설명에서 제시했듯이 예수님의 세상 종말에의 재림(사도 1,11; 3,20~21; 17,31)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3.2. 종들에게 사명하달(19,13)

귀족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자기 종 열 명의 역량을 감안하지(마태 25,16) 않고 그들이 수익을 올리도록 1미나씩 주었다.

화폐단위(제9강, 성서에 나오는 화폐의 종류 참조)

루카 복음에서는 종들이 하는 일이 경미한 것으로 서술된 반면, 마태오 복음에서 각자의 능력에 따라 주어진 거금은 비유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귀족은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종들이 각기 1미나를 가지고 사업을 해 이익을 남기면 더 큰 책임을 맡기려 했다(루카 9,15.17.19).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제자들이 당신께 배운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충실하면 더 큰 책임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그러므로 그들은 시련과 박해 가운데 관리인의 직분, 사도직에 충실해야 한다. 또 귀족이 열 두 명이 아니라 열 명에게 책임을 맡긴 것은 열 두 사도에 국한시키지 않고 제자들 전체를 대상으로 삼음을 암시한다.

3.3. 왕권에 대한 백성들의 반대(19,14)

백성들이 왜 귀족을 미워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독자들 스스로 그 설명을 찾아야 한다.

독자들은 백성들이 귀족을 미워했다는 부분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유다인들의 미움을 당하고 계셨다는 말씀에서 그분의 의도를 간파해야 한다. 실상 당대 독자들은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미워하며 그분께서 자기들을 다스릴 것을 거절하고 그분을 죽였다는 것(23,18)을 이미 알고 있었다. 게다가 그들은 그 모든 만행에도 예수께서 부활하시어 유다인들의 임금이 되셨음도 알았다.

4. 관리직분에 대한 종들의 충성도 확인(19,15~26)

4.1. 충성도 확인을 위한 종들의 소집(19,15)

귀족이 임금의 칭호를 얻어 돌아온 것은 종들이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렸는지 셈을 요구한 것과 관련된다. 그것은 예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각 제자에게 위임하신 것을 그들이 충실히 이행했는지 따지신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구세주이자 임금으로 받들고(루카 19,35~36,38) 그분 안에서 드러나 하느님의 위업에 승복해야 함을 강조한다(19,30~34). 예수님은 승천하시어 아버지께 왕권을 받으시고 세상 종말에 그것을 완전히 행사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임금으로 받들어 모시는 사람들은 더 큰 책임을 받겠지만 메시아 예수의 왕권을 거절한 적수들은 벌을 받을 것이다(루카 19,27). 이 벌은 예루살렘 파괴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루카 19,43~44)

4.2. 첫째 종에 대한 칭찬(19,16~17)

16절 : 첫째 종의 보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복음선포에 얼마나 충실하고 열매를 거두었는지를 강조한다.

17절 : 이는 주인이 그를 자기 왕국의 통치에 참여시키겠다는 뜻이다. 이처럼 관대한 주인은 수익의 증식에 집착하기보다는 종들을 자기 권능에 참여시키는 분이다. 그것은 예수께서 충실한 제자를 하느님의 왕국으로 데려가 당신 통치권에 참여하는 특혜를 부여하시겠다는 약속을 의미한다. 또 그것은 구원역사의 결정적인 성취에 제자가 한 몫을 하는 특혜를 받는다는 뜻이다.

4.3. 둘째 종에 대한 칭찬(19,18~19)

이 종은 첫째 종의 책임 및 권능의 절반을 받는다. 그것은 하느님이 각 종에게 베푸신 은혜, 성취와 보상에 차이가 난다는 뜻이다.

4.4. 다른 종에 대한 질책(19,20~24)

20절 : 셋째 종이 ‘다른 종’으로 불린 것은 그가 주인의 명령에 대한 순종한 ‘첫째 종’과 ‘둘째 종’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임을 뜻한다. 이 다른 종은 뻔뻔스럽게 자기가 손수건에 쓴 1미나를 주인에게 돌려주며 아무런 수익도 남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돈으로 벌이를 하라는 주인의 명령(루카,19,13)을 무시한 불충실한 종이다.

21절 ㄱ : 위의 종은 자신 안에 갇혀 주인에게 마음을 열지 않으면서 자기가 어떻게 수익을 올리지 못했는지에 대해 해명도 하지 않고 그 탓을 주인에게 돌렸다. 그는 주인을 냉혹한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해 돈을 수건에 싸두었던 것이다. 냉혹한 사람은 21절 ㄷ에 표현된다.

“가져다 놓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시기에”(19장 21절 ㄷ ㄹ)

다른 종은 주인이 개입하지 않고도 찾아가는 식의 횡포를 부리거나 노력하지 않고 남

이 번 것을 착취한다고 불평했다. 그의 논리는 자기가 돈을 벌면 주인은 가져가버리고, 자기가 손해를 보면 주인이 책임을 추궁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그는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다. 다른 종은 주인의 명령이 가혹하다고 여기거나 그의 권위를 무시해 서라기보다는 그가 물욕이 너무 많다는 뜻에서 엄격한 주인으로 간주하고 그를 두려워했던 것이다. 그러나 다른 종의 두려움은 근거가 없다. 주인이 실제로 물욕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22절 ㄱ : 주인은 그를 ‘악한 종’이라고 단죄했다. 그가 아무런 수익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의 변명을 단죄 이유로 삼으며 임금으로서 그를 심판하겠다고 위협한다. 그는 게으르고 심보가 고약해서 주인의 재산증식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종은 세상 종말의 결정적 심판을 자초했다. 주인은 많은 수익을 올린 착한 종들에게는 풍성하게 보상하는 반면, 아무런 수익을 남기지 않은 악한 종은 가차없이 엄격하게 처리한다.

“내가 냉혹한 사람이어서 가져다 놓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나? 그렇다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넣지 않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되찾았을 것이다.”(19,22c~23) 율법규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족끼리 이자를 받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있었다(신명 23,20~21; 탈출 22,24; 레위 25,36~37).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다른 종이 이방인들과 은행거래를 했더라면 그의 생각처럼 노동도 하지 않고 돈을 벌어들이려는 주인이라도 기쁘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으며 그에 대한 문책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다른 종의 처신은 하느님을 엄격한 분으로 오해하면서도 그분의 참된 모습을 알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들의 상황을 반영한다. 그의 처신은 죽도록 고생해서 쌓아놓은 업적을 그분께 다 빼앗기고 만다는 타산에 따라 그분의 말씀을 배척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가리킨다.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살며 하느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넘쳐흐르는 사람의 인격자체가 바로 하느님의 보상이다. 반면, 하느님은 복음정신에 따라 살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지도 않는 제자들의 인격은 단죄하신다.

24절 : 예수께서 절대 주권을 행사하는 주님이심을 뜻한다.

4.5. 군중의 반응(19,25)

그들은 주인이 제일 많이 가진 첫째 종에게 덧붙여주는 것이 불공평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들은 다른 종이 빈털터리가 된 반면, 첫째 종은 가진 데다 덤으로 가지게 된 충격을 금할 수 없었던 것이다.

4.6. 칭찬과 질책에 대한 임금의 평가(19,26)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하고 자기의 말이 중요함을 인정하라고 주의를 환기시킨다. 위 진술은 주인이 충실한 종에게는 포상을, 불충실한 종에게는 손해를 준다는 격언과 같은 원칙이다. 예수께서는 이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셨다. 하느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선물에 협력하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기대 이상의 보상을 받아 복음화된 인격을 연마하는 반면, 협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받은 선물마저 빼앗겨 그 인격이 복음으로 전혀 변화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복음은 하느님의 선물인 동시에 복음에 따라 살라는 사명을 부여한다. 복음을 많이 받아들일수록 더욱 복음화되는 큰 선물을 받는 반면, 복음을 배척할수록 복음의 선물을 상실하고 만다.

아무런 수익을 올리지 못한 다른 종이 가진 것마저 빼앗겼다는 말은 주인을 모신 첫째 종과 둘째 종과는 달리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주인은 그에게 부과했던 책임을 박탈하고 동료 종들과는 분리해 ‘다른 종’으로 불렀다. 그는 주인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실제로는 주인을 오해하고 신뢰하지 않음으로써 주인과의 관계를 스스로 차단하고 주인에게 악한 종이라는 선언을 듣는 벌을 받았다. 하느님 나라의 복음선포에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믿고 따른다고 생각만 할 뿐 실제로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등불의 구실을 포기하는 것이다. 다른 종은 예수님을 자비로운 분으로 인정하지 않고 엄격하고 불공평한 분으로 오해하면서도 제자들의 무리에 속해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자처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한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애쓰지도,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지도 않는 이들은 심판을 면할 수 없다.

루카 복음(19,26)의 병행구인 마태오 복음(25,29)에서는 1탈렌트를 땅에 파묻은 종이 복음에 따라 살지 않고 이미 받은 하느님 나라의 복음마저 빼앗겨 이 왕국에서 제외되었다. 그는 쓸모없고 악한 인간이 되어 바깥 어둠 속으로 추방당하고 대성통곡을 하며 이를 가는(25,30) 세상 종말의 심판을 받았다. 이와 달리 루카 복음사가는 세상 종말의 심판을 역사적 사건으로 해석했다.

5. 백성 대표들에 대한 비판(19,27)

임금이 된 주인은 자기가 왕권을 얻는 것을 반대한 백성 대표들을 살해하라고 명령했다. 고대 근동에서는 통치자가 원수들을 자기 면전에서 학살한 사례가 많았다. 그 사례는 구약에서도 발견된다. (1사무 15,3; 예레 39,5~7; 52,9~11.24~27 참조) 여기서 원수는 예수님을 임금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한 유다의 지도층을 가리킨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이자 임금으로 받들어 모시지 않아 그들의 성도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벌을 받는다(루카 19,43~44). 예수께서는 당신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태도가 생명과 죽음을 결정한다고 가르치시며 당신의 왕권에 승복하라고 재촉하신다.